

전남도, 함께 잘 사는 '마을공동체' 전파 나섰다

2개월간 시·군 순회 설명회 순천 문성마을 등 우수 사례 활동가 교육·사업 내용 안내

순천 문성마을은 25농가 39명이 오손 도손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평균 나이는 70세. 마을회가 구성돼 공동체를 가르고 있다. 또 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소득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특산물인 콩과 콩나물을 융합해 '콩나물 숙성 된장'을 개발했다. 건강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을 상대로 회원 모집에 성공하면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팔려나갔다. 처음에는 17명으로 시작했는데 4년만에 2360명으로 불었다. 6가구 가구가당 650만원을 출자해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점차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마을 전체 25가구로 늘었다.

전남도가 5일부터 11월8일까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 설명회를 연다. 전남도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갈등, 지역 내 문제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차리 창출에 기여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들을 위한 주민 교육, 마을공동체 리더 교육, 공동체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 역량인 주민 조직의 참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을 순회하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방법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김석희광소울 주민자치 연구소장과 문병교 전국 마을네트워크 광주전남 상임위원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필요성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 ▲광양 송보7차 아파트공동체 ▲순천 문성마을공동체 ▲진도 개들리 마을공동체 대표들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모범 운영사례를 소개한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씨앗-새싹-열매의 성장형 공동체 육성사업과 올해 처음 시작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마을공동체 리더와 마을 활동가 등 마을 일꾼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관리 방안,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등도 알려나갈 방침이다.

설명회는 5일 무안 삼향읍주민복지센터에서 무안군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순회 개최하며,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노력되고 홀로 사는 가정이 많은 마을에 가족 같은 공동체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면 많은 문제들을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동체 만들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설명회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군별 세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마을공동체팀(061-286-356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061-982-106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제가요 정음사 관광지 사업지구. (정음시 제공)

'정음사' 관광지 내년 말 완공 예정

정음 정해마을에 박물관·체험관 등 갖춰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음사 (井邑詞)'를 주제로 한 관광지가 2019년 3월 전북 정음에 문을 연다. 정음시는 신정동 정해마을 일대에 만들고 있는 '백제가요 정음사 관광지'가 현재 70%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내년 말을 전후해 완공될 예정이다. 정음시는 계획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관광철이 시작되는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백제가요 정음사 관광지는 정음사의 배경이 된 신정·용산동 일대 21만5000여㎡에 국비 94억원, 시비 200억원 등 모두 304억원을 들여 조성 중이다. 부부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음사 여인

집과 정음사 가요박물관, 한식체험관, 저자거리 등이 들어서고 전통기악곡인 수제천을 형상화한 정원 등 주제별 정원과 연못, 누각 등을 갖춘다. 특히 가요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시대별 사랑 가요를 수집해 관람객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현대적 감각의 상시 오디오션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생기 정음시장장은 "정음사 관광지는 '정음사'라는 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시도"라며 "인근의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와 더불어 정음시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민물장어 위·직판장 개장

영암에 전국 최대 규모

영암에 전국 최대 규모 민물장어 위판장과 직판장이 문을 열었다.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민물장어수협)은 영암군 신북면 옛 영암휴게소에 위·직판장 개장했다고 5일 밝혔다. 영암 위판장은 9000여㎡ 부지의 옛 영암휴게소를 리모델링해 직판장, 축양장, 식당, 사무실 등을 갖췄다. 규모는 전국 최대다.

민물장어수협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는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에 대비해 위·직판장을 개설했다.

경기 일산, 전북 고창에도 직매장을 갖췄으며 영광에도 조만간 개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판장 거래 의무화는 법률을 적용할 품목 고시, 예외 규정을 통한 일부 위판장 외 거래 허용 여부 등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지난 6월3일 시행일을 넘기고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성대 민물장어수협 조합장은 "우리나라의 민물장어 양식 기술과 생산량은 중국인 일본을 앞질렀지만 검정·가공·유통 시스템은 크게 뒤떨어졌다"며 "민물장어수협은 6년간 청원활동으로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이뤘고 이는 생산자·소비자·유통상인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유통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위판장을 통한 수산물 유통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시대 정신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해수부는 하루빨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암=전북한겨레 jbh@



나주시는 최근 신숙주 생가로 유명한 노인면 금안마을에 '신숙주 작은도서관'을 설립해 개관식을 열었다. (나주시 제공)

신숙주 고향 나주 금안마을에 '작은도서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신숙주의 고향에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주민이 집에서 10분 거리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의 27번째로 신숙주 생가로 유명한 노인면 금안마을에 '신숙주 작은도서관'을 설립,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 신숙주 도서관은 115㎡ 면적의 전통 한옥건물에 2000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강좌도 운영한다. 또 다른 한옥 건물에 들어선 농촌체험카페는 마을 주민의 기술과 솜씨를 그대로

엮을 수 있는 다과, 차, 식혜, 천연염색 소품 등이 전시·판매되는 등 짙짙한 소득도 기대된다. 체험카페는 금안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마을의 멋과 맛을 체험하는 쉼터는 물론 인근 마을의 사람방으로 활용된다. 또 방학을 이용한 초·중학생 대상 한문과 교양 강좌 등도 열고 있다. 금안마을은 호남의 3대 명촌(名村)이자 한글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인 보한재 신숙주(1417~1475)의 고향이자 500여년 이어온 대동계(大同契)로도 유명하다. 영암 구림, 정음 신태인과 함께 호남의 3대 명촌이며 경령사, 쌍계정, 설재서원 등

사원과 정자, 효자·열녀비 등 각종 문화재 20여개가 있는 선비의 마을이기도 하다. 나주시는 현재 터만 남아있는 신숙주의 생가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금안동 마을과 주변 사당, 서원 등을 연계해 아름다운 흙담 길 코스, 숲과 함께하는 추억코스, 조선 선비 과거 준비길 코스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신숙주의 한글 창제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한글축제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진왜란 직후 폐쇄된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뜻에서 마을 계를 발전시킨 금안동 동계(洞契)는 500년을 내려올 정도로 오늘날 지방자치의 근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농촌테마 자원은 관광자원으로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군산시 "내 고장 상품 먼저 쓰겠습니다"

시청서 560명 결의대회

군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등 전체 직원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 고장 상품 애용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등의 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 고장 상품 애용'에 대한 실천 의지를 전명하고 이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직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적극 이용 ▲주말 군산에서 보내기 ▲지역업체와 '내 고장 생산 물품' 우선 애용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체에 내 고장 상품 애용 소비촉진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과 시에서 발간한 '내 고장상품 가이드북'을 발송하는 등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범시민 소비촉진 운동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문용목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활동은 내수 활성화와 집체된 군산경제 회복의 원동력이므로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과 지역업체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지원해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담양 청평면 730㎡ 전원생활적합 1억1500
- 장성 북하면 장성호·백암사 인근 2803㎡ 동호인 주택적합 1억3천
- 장성 북하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원도 악산면 해안가 대지 607㎡ 판선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주택·원룸·아파트

- 화성동 중흥파크2년내면 대지 149㎡ 주택 160㎡ 삼기전용가능 2억3천
- 화성동 주택 화순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 사용 60여평 3억3천 상담요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평 124㎡ 임대 1억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현경면 바닷가 전 4542㎡ 공사가 7천만 매도 8300만원
- 함평역 인근 대로점 주거지 3192㎡ 다용도 가능 2억3천

상가건물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전세 3억5천 월 1100선 25억5천
- 화성동 다가구 8세대 전세 2억2천 1억5천선 땅과 교환 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김점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원룸·다세대 부지

- 동명동 주거지 294㎡ 법원과 조세대 사이 3억7천
- 신안동 상업지 358㎡ 신안지구대 부근 4억4천
- 광산구 옥동(평동) 1438㎡ 평동역에서 1.5km 15억3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3천 매도 1억9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인근 1억7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중흥동 모텔 대지 184㎡ 건평 652㎡ 은행 3억9천 수리해01매 천만원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김점 2억5천, 매도 1억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리조트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문의. 010-3605-5000

<h4>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h4>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h4>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h4>수완지구 아파트 매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